전남도와 진도군은 한전, (주)레네테크 등은 25일 서울 임페리얼호텔에서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 200MW급 조류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했다.

# 1조원 투입 조류발전단지 조성 탄력

## 전남도-진도군, 6개기관과 양해각서

## 2014년까지 1단계…2016년 사업 완료

진도군 조도면 장죽도와 상·하조도 사이에 있는 장죽수도와 맹골수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200MW급 조류(潮流)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200MW는 18만가구에 동시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주)레네테크, 현대엠코(주)와 25일 서울 임페리얼 호텔에서 조류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남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류발전단지 조성은 우선 1단계 실증사업으로 오는 2014년 중반까지 1MW 조류발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본 사업으로 2016년까지 장죽수도에 200MW 단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1조원이 투입된다.

이 해역은 수심 40m에 최대유속이 초당 3.5m에 달하는 등 물살이 빨라 조류발전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 수역에서 시험발전소(110kW)를 설치, 운영한 결과 상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주관사인 '레네테크사'와 독일의 조력발전 전문기업 '포이트 하이드로'(Voith Hydro)사는 지난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에는 (주)레네테크가 개발·특허를 보유한 신공법을 적용, 기존 조류발전 시스템에 비해 전기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류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주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발전은 바다밑 좁게 형성된 수로에서 발생하는 급류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으로,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조력(潮力)발전과 차이가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기능성 쌀 브랜드화 앞장"

## 해남 미맥 사업단 출범

틈새시장을 겨냥한 기능성 미맥 품목을 육성하고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식회사 해남 미맥(米麥)사업단이 출범했다.

해남 미맥사업단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유색미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보고회에서는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박희재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유색미맥 재배농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주)해남 미맥사업단은 관내 유색미와 유색보리 재배 농업인 85명이 주주로 참여해 1억원의 자본금과 400ha 경지면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해남 미맥사업단 박갑진 대표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브랜드해 가공·유통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군수는 "해남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추와 고구마, 쌀, 무화과 주식회사 출범에 적극 노력해왔다"며 "미맥 사업단의 기능성 미맥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지역에는 현재까지 해남배추 주식회사, 해남고구마 식품 주식회사, 해남 고품질쌀 주식회사, 땅끝 시설무화과 주식회사가 출범했다. 군은 앞으로 감자·버섯·밤호박 등 품목에 대해 농업회사 설립을 유도, 시장개방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도시민-농촌 소통의 장 '팜 파티' 인기

해남군이 농촌진흥청과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팜 파티'(Farm Party)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황산면 한자리 혜은농장(대표 박은혜)에서 광주지역 소비자 40명을 초청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팜 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팜파티는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주제로 먹거리·볼거리들을 선보이고, 방문객 참여를 유도해 농산물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행사로 이뤄졌다.

또한 허수아비 만들기와 배추모종 심기, 벼 수확체험 등과 농장에서 생산하는 일곱가지 '레인보우미(米)'로 만든 무지개색깔 비빔밥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홍보와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신안군, 공설묘지 이용 향우까지 확대

신안군이 공설묘지 이용 대상자 범위를 국내외 향우까지 확대했다.

군은 공설묘지 이용 대상 범위를 신안에 고향(본적 또는 원적)을 둔 향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조례'를 개정했다.

신안 대부분 섬이 국립공원지역인데다 섬 특성상 공설묘지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군은 신안 인근 다른 시·군에 일정 규모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조성, 군민과 향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자연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완도여중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완도여자중학교(교장 박승태)는 최근 5일간 교내 목련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했다.

국립 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과학관'은 취약지역에 과학 창의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생활 속의 과학기술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 중앙과학관의 주요 소장품인 곤충 및 화석표본과 식물 생태사진 등을 전시하고, 물리·천문·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원리 체험전시물 등 총 1949점을 선보였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태풍 피해지역 887억원 지원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전북 도내 농·어업 시설 등에 대해 복구비 887억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국비 637억원, 도비 120억원, 시·군비 130억원 등 총 88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이전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주 지원내역은 ▲벼 알곡이 차지 않는 백수(白穗) 피해에 419억원 ▲인삼재배시설 135억원 ▲낙과 133억원 ▲비닐하우스 119억원 등이다.

또 사망자 6명에게는 1인당 1000만원씩, 부상자 4명에게는 각각 500만원 안팎이 지원되고, 주택 피해 복구비도 총 5억여원이 지원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업시설은 개소당 100만원 안팎의 수재의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지역은 8월말 잇따른 태풍으로 사유시설 805억원, 공공시설 224억원 등 총 102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다문화' 송편**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원지역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최근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회원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단신

### 군산시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4년째

군산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 이로써 군산시의회 의정비는 4년째 동결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폭우로 발생한 복구예산이 증액된데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에 그늘이 드리워진 점 등을 고려해 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강태창 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의정비를 현실화하기 이전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시 무인 민원발급창구 공휴일 운영

정읍시는 10월 1일부터 종합민원과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공휴일(오전 9~오후 5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평일에는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해 직장인·맞벌이 부부 고민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병적 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 등본 등 5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은 무인 민원발급 창구이용시 1000원의 발급비용이 50% 감면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농기센터,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최근 2008년부터 김제시에 귀농·귀촌한 229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종합센터 손태식 소장을 초빙해 귀농인의 성공사례와 상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 특색 있는 귀농·귀촌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에 대한 작목별 기초재배기술과 함께 귀농 사례 중심의 현장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부안군, 추석 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부안군과 부안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까지 추석명절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활동에 나선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내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수산물시장, 청과시장 등에서 취급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나물류·과일류·대추·밤 등 제수용품이다.

축산물의 경우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남원 미꾸라지 '지리적 표시' 등록

남원 미꾸라지가 내수면 어류 중에서는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시는 지난해 3월 남원지역 토종어류인 미꾸리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 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통칭해 미꾸라지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꾸라지로 최종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품으로 생산되는 남원 미꾸라지는 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한 민간 종묘생산 농가로부터 생산된 치어를 양식해야 한다.

남원 미꾸라지는 6개소의 민간 종묘생산 농가와 41개소의 양식장에서 키우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에 '바다 숲'

## 市, 옥도면 연도 일원 어초 89기 설치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에 해양 체험과 수산증식을 위한 '바다 숲'이 조성된다.

군산시는 최근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와 함께 옥도면 연도 일원에 아치형 어초 89기를 설치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특수제작된 어초에 전복, 해삼 등 어패류가 좋아하는 감태, 모자반 등 해초를 직접 이식해 섬 주변 등 연안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음달에는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 해역에도 바다숲을 조성한다. 감태를 이식한 육각 패널 'H빔' 어초를 바다 밑에 설치해 어촌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고창군 녹색에너지 '우수 자치단체'

고창군이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대통령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 주최의 '2012 녹색성장 생생도시 경연대회' 녹색에너지 부문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7월 서면평가와 8월 현장평가를 거쳐 본선에 오른 고창군은 지난 2009년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 뉴타운을 친환경 목조주택과 에너지 자립형 주택으로 조성하고, 국내 최대 15MW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실현에 앞장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